

작가 소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바느질을 하시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에 바늘과 미싱 소리는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밥처럼 안온하게 느껴집니다.

1990년 초 공예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공예가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키우며 조각전, 침선 공예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문화센터와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예 수업과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강북구에 '잇다공방'을 열어, 수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느질은 천과 천을 실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바느질을 통해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잇다' 라는 공방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수공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손으로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선물로 간직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겨있는 수공예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 섬유공예가 박일현 -

포트폴리오

- 작 품 명 : 먹물과 감물 사이
- 수량(구성품 포함) : 1 점
- 소재 : 삼베,면
- 작업과정 : 삼베와 면에 먹물과 감물을 염색후 다양한 조각으로

자른뒤 싘슬(규방바느질방법)로 바느질한다.

- 크 기 : (가로)170 × (세로)170



- 작 품 명 : 들꽃 세상에 앉아서
- 수량(구성품 포함) : 4 점
- 소재 : 손염색 면, 자수실 25번사
- 작업과정 :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망초, 여뀌, 코스모스, 도라지 꽃을 염색한 천 위에 색실로 풀어놓았다.
- 크 기 : (가로)65 × (세로)65



- 작 품 명 : 화경집 (거울 노리개)
- 수량(구성품 포함) : 2 점
- 소재 : 명주, 단, 거울, 매듭 끈, 은
- 작업과정 : 7배접지를 만들어 목화 솜 넣고 단으로 마감 후 귀
갑치기로 연결한다. 매듭 끈에 은을 달아 연결한다.
- 크 기 : (가로)8 × (세로)37



- 작 품 명 : 옛 안경집
- 수량(구성품 포함) : 3 점
- 소재 : 명주, 단, 목화 솜, 매듭 끈, 옥, 은
- 작업과정 : 안경틀 만들기 - 나무틀 위에 한지 → 거즈 과정을 7번 거쳐 7배접 안경틀을 만든다.
 - * 누비안경집 - 목화 솜 위에 명주를 얹어 누빈 후 안경틀에 고정시켜 만든다.
 - * 메밀섭안경집 - 여러조각의 단을 메밀섭 모양으로 바느질 해 목화 솜을 넣어 안경틀에 고정시킨다.
 - * 색실누비안경집 - 천과 천 사이에 면 끈을 꼬아 넣어 옴박음질로 바느질한다. 색실누비된 천을 안경틀에 고정시킨다.
- 크 기 : (가로)10 × (세로)41

